

#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 인재의 육성

클\_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 비서가 인간을 대신해서 식당 예약을 하는 장면이 수년 전에 공개된 가운데 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웨어 하우스 회사인(data warehouse-as-a-service)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라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상상으로만 있었던 미래가 이미 현재에 와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으로 상징화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HRD의 대응도 이제는 더 이상 원칙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적인 지원 및 구현의 모습으로 다가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DX 역량 개발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도전적 과제들을 컴퓨터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분석하고, 해결안을 찾는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이 있다. 예컨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질문

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상담원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팅 사고력 관점으로 재조명해 챗봇(Chatbot)을 개발함으로써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인간은 보다 생산적인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컴퓨팅 사고와 같은 DX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소속한 기업에서 코딩 관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라. 대체로는 코딩 관련 전문 강사가 기초부터 시작해서 고급의 코딩 관련 기술을 가르치는 방식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이런 방식의 접근이 필요는 하다. 이른바 기초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정교하게 설계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조금 오래된 모형이기는 하지만, 컴퓨팅 사고력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안을 도출하는 경험을 가

“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기업 인재 육성의 핵심으로  
컴퓨팅 사고력, 전문 영역의 지식과 경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합적으로 발현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

능하게 하는 ‘Goal Based Scenario’가 소개된 적이 있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주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코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 방식이다. 이 접근에서는 실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코딩을 별개로 두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해결안을 도출하게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경험까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갖게 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DX로 특징지어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기업의 인재 육성의 핵심에는 컴퓨

팅 사고력, 전문 영역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존재한다. 현재 소속된 회사 교육 프로그램들을 찬찬히 살펴보기 바란다. 혹시라도 위의 역량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최적의 트랙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세 가지 역량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과감히 실행할 시점이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바로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HRD



글\_임철일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이자 미래교육혁신센터 소장. 4차산업혁명명위원회 에듀테크 활성화 TF 단장, 한국창의성학회 부회장, 한국교육학회 국제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교육공학회 회장, 육군 교육사령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